

월간 내일

BUILD UP!
함께 더 나은 내일로!

일과 공간 그리고 미



건축가 유현준 교수의
테마 인터뷰는 26p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트렌드 캐치업

2023년 정책 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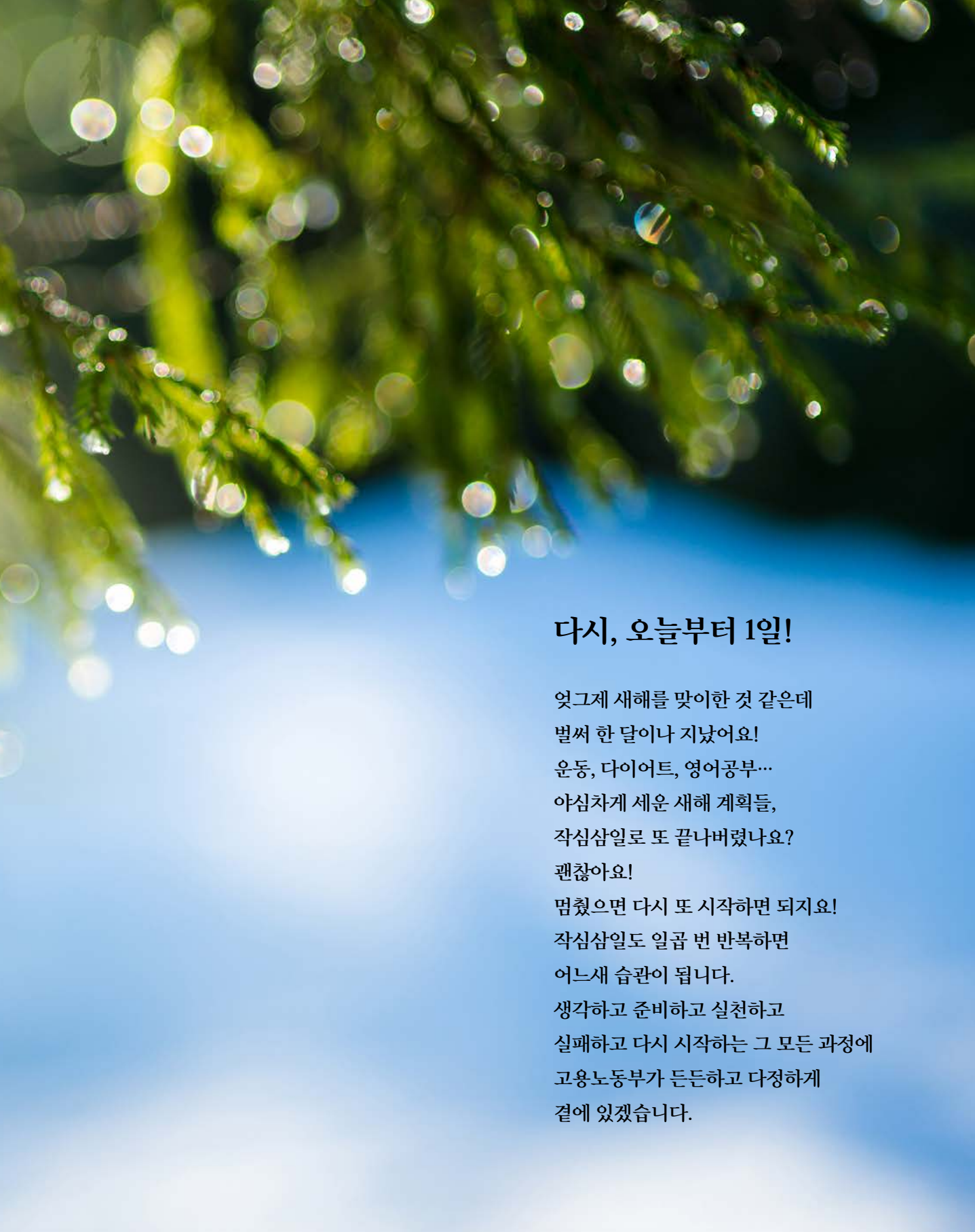
내일로 붐업

농촌 마케팅에 새로운 바람

날마다 레벨업

임주임의 공감일기





다시, 오늘부터 1일!

엣그제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나 지났어요!

운동, 다이어트, 영어공부...

야심차게 세운 새해 계획들,

작심삼일로 또 끝나버렸나요?

괜찮아요!

멈췄으면 다시 또 시작하면 되지요!

작심삼일도 일곱 번 반복하면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실천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 모든 과정에

고용노동부가 든든하고 다정하게

곁에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성장해요!
고용노동부와 함께 BUILD UP!



Chapter 1 트렌드 캐치업!

- 08 1교시**
2023년 고용노동부, 이렇게 달려갑니다!
- 12 2교시**
한눈에 보는 2023년 일자리사업 예산
- 16 3교시**
대상별 특성에 맞춰
세분화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 22 4교시**
시대 흐름에 발맞춘 정책을 추진합니다!
- 26 내일이 만난 사람**
건축가 유현준





Chapter 2 내일로 붙임!

- 34 뉴스타트**
노후의 확실한 보험, 도전과 성취
- 숲 해설가 고무중
- 38 청년꿈터**
새로운 내일로 향해가는 그로스 해커
-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자 신은진
- 42 곳&곳 오피스**
직원의 생각과 성장이
회사의 생각이고 성장이다
- 법무법인 비트
- 46 더불어 세상**
농촌 마케팅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다
- 메타비
- 50 고용노동 뉴스**



Chapter 3 날마다 레벨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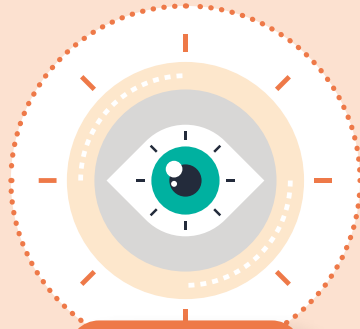
- 62 미디어 속 노동위기**
드라마 <삼남매가 용감하게> 속
흥미로운 노동법 이야기
- 66 JOB툰**
임주임의 공감일기
- 68 디지털 휴먼**
코딩이 '21세기의 영어'라고요?
- 70 주말에 뭐 할래?**
로맨틱 큐레이션+힐링 큐레이션
- 74 직장생활백서**
취향 발굴 플랫폼 추천
- 76 채널 moel**
이 영상 못본 취업생
없게 해주세요~
- 78 그린 리추얼**
with 손수건 챌린지
- 80 내일스타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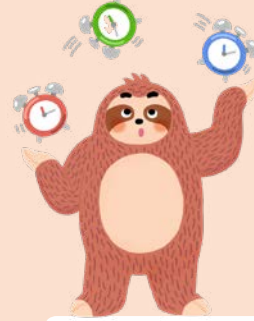
고용노동부 소식지 <내일>

통권 강남 라 00389(통권 573호)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 기획·제작 큐라인



Chapter 1



트 렌 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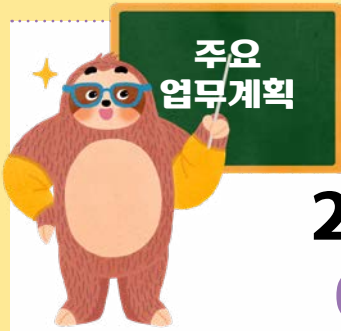


캐 치 업

우리 함께 세상 읽기

나라는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고용노동부는 2023년을
공정과 법치의 노동 개혁 원년으로 삼고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법치 기반의 노동 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노동시장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을
중점 과제로 추진합니다.
올해 고용노동부의
중점 사업들을 국민께 보고드릴게요.



2023년 고용노동부, 이렇게 달려갑니다!

지난 1월 9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올해 고용노동부의 정책 추진 방향,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노동 개혁,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합니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①법치 기반의 노동 개혁, ②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③노동시장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을 중점 과제로 추진합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핵심요약,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1.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 개혁, 성공적으로 완수하겠습니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변화하는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겠습니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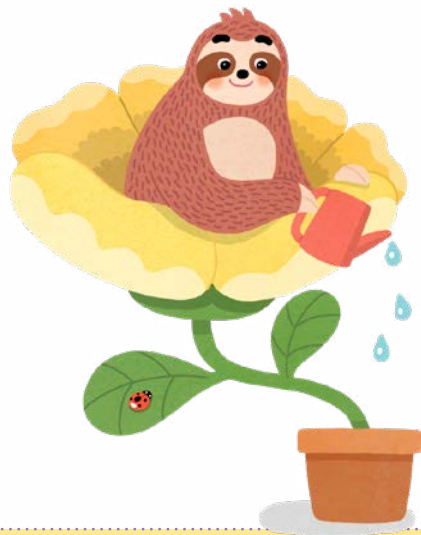
노동조합이 시대변화에 발맞춰 사회적 위상에 걸맞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 자율점검 기간(2022.12.29.~2023.1.31.)을 차질없이 운영하는 한편,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등 회계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 노동조합법 시행령도 즉시 개정(3월)에 착수(3월)합니다.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올해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폭력 등을 통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 노동조합 재정 부정사용,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이 신고 대상이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도·점검 및 시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규율 신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2월 개정안 발의).

5대 불법·부조리 근절

①포괄임금 오남용, ②임금체불, ③부당노동행위, ④불공정 채용, ⑤직장 내 괴롭힘 등 ✓ 노동시장의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제도개선도 병행합니다. 특히, 공짜야근을 유발하는 ✓ 포괄임금 등의 편법적 임금 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월 중 마련할 예정이며, ✓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신용제재·정부지원 사업 제한 등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합니다(1분기).





근로시간 제도 개선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재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까지 다양화하고, ✓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전 업종 대상 3개월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 등

✓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 절차와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장 내에서 특정 직군·직종 근로자가 근로시간 제도 등 자신에게 맞는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 부분 근로자대표 제도도 도입합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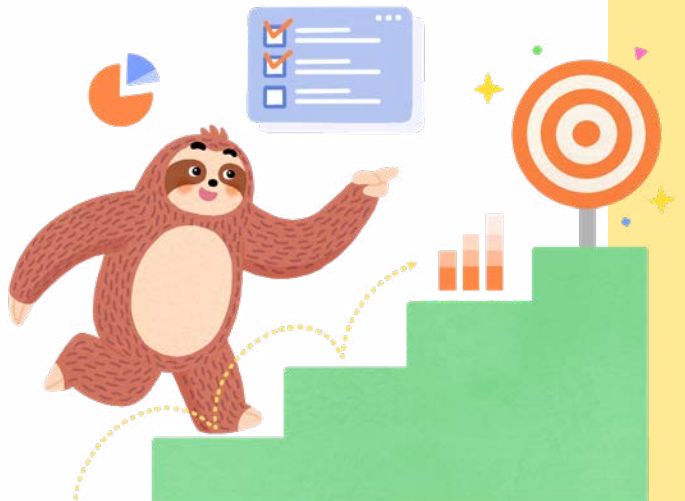
✓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집중지원합니다.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을 집중점검하고(1만 개소), 50인 미만 소규모·제조업 사업장에는 위험 공정 개선을 집중 지원합니다(4,820억 원). 또한 ✓ '위험성 평가'를 핵심 예방수단으로 확립합니다.

산업안전 관계법령 정비

1월부터 전문가 TF를 운영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1년 간의 시행 성과를 평가하고, ✓ 처벌요건 명확화 및 제재 방식 개선 등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또한 기술변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현장성 있게 정비합니다.

산업안전 규제의 과학화·산업화

스마트기술 안전장비 개발·보급사업(신규 250억 원)을 시행하여 ✓ 안전보건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일터 안전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는 등 6월 중 「안전산업 기반조성 및 육성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해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우리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 노조 중심, 이동성 제약 및 격차 발생으로 이중구조가 심화돼 있습니다. 상생과 연대의 산업·노동 생태계를 조성해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

노사관계, 노동법 등 학자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하고 임금체계 개편과 격차 해소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정책 개선방안과,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을 차등화하는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합니다.

아울러, 인사·노무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확대하고, √ 임금정보시스템을 연내 구축하여 업종·직종별로 노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원하청 상생모델 확산

2월까지 조선업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정부는 안정적 인력수급, 공정거래질서 확립, 임금·복지 격차 완화 등 관련 정책 패키지를 지원함으로써 √ '조선업 상생모델'을 구축합니다. 이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 타 업종을 선정하고 확산을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 노무제공자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과 함께, √ 근로기준법도 근로자 인권권 보호를 중심으로 사업장 부담을 고려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단계적 적용 확대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교대상 근로자 범위 확대, 신청기간 연장 등을 추진합니다. 한편,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3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3.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겠습니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인력수급 mismatch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혁신 직업훈련을 통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핵심인력 양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업종별 취업지원허브 신설 등

지역을 넘어 산업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 반도체·조선업에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인력수요를 신속히 파악·지원하고, 향후 IT·자동차·바이오 등으로 확대합니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뿌리산업 등 상시 인력난을 겪는 업종을 밀착 지원하는 ✓ 신속취업지원TF(17개소)도 지속 운영합니다. 금년부터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본격 시행하여 기업·구직자의 채용·취업 애로사항을 해소합니다.

현장형 핵심인력 신속양성

선도기업과 혁신훈련기관을 활용한 혁신훈련 분야를 기존 디지털 분야에서 ✓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까지 확대하고 양성규모도 3.6만 명으로 늘립니다. 이외에도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 신설(5개소) 및 디지털 분야 공동훈련센터를 추가 설치(+15개소, 20→35개소)해 대기업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 중소기업 공동훈련 지원도 강화합니다.

외국인력의 유연한 활용 지원: 고용허가제 20년 만에 개편

올해 ✓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명을 도입하면서 ✓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허용 한도 상향(20%)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도 확대합니다. ✓ 일반 고용허가제(E-9)는 폐기물 처리업 등으로 확대하고, ✓ 방문취업동포(H-2)는 허용 업종 선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청년: 일경험 확대

청년들의 ✓ 일경험 유형을 다양화(기업탐방·프로젝트·인턴십)하고, 참여인원을 확대합니다(1→2만 명). 니트 방지를 위해 ✓ 구직단념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1~2개월→5개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도전준비금을 신설합니다.

여성: 경력단절 → 경력유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1.5년으로 확대하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상 자녀 연령(만 8세→만 12세)과 사용기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합니다. 사회적 논의시 계속고용 방식 및 시기, 임금·직무 조정 근거 마련, 기업·근로자 지원방안 등 다양한 과제를 포함합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 계속고용장려금(2022년 3천 명→2023년 8.3천 명)을 대폭 늘려 지원합니다.

장애인: 양질의 일자리 확대

대기업 사회사형 표준사업장 확산을 위해 ✓ 설립제한 규제(예: 상호출자제한, 금산분리 등) 완화를 관계부처와 적극 논의하고, ✓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비율도 상향(0.6→0.8%)합니다. ✓ 출퇴근비용 지원대상 확대(3.9천 명→15천 명) 등 장애인 근로자가 일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중도인출 제한 등을 통한 연금성 확대, 취약계층 재정·세제지원 내용 등을 담은 ✓ 「퇴직연금 기능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합니다.

급여지원 → 서비스 중심, 재취업기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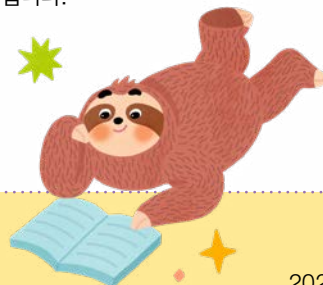
✓ 실업급여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맞춤형 재취업서비스로 조기취업을 촉진하고, 반복수급자 급여 감액을 통해 수급자의 취업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 실업급여 제도 전반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일정수준 이상 소득 발생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정지하지 않고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해 지급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충분한 일자리 탐색 기회를 보장하고, 조기취업성공수당을 확대하여(조기취업 시 잔여수당의 50% 지급) 근로의욕을 높이고 빠른 취업을 유도합니다.

컨틴전시 플랜 가동

일자리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범정부 ✓ 「일자리 TF(고용부·기재부 차관 공동주관)」를 운영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사업을 총괄 점검하며, ✓ 고용상황이 악화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즉시 가동합니다.

근본적 체질 개선

산업·인구구조 전환에 대비한 미래 일자리 대응체계 구축, 단기 일자리 지원 축소 및 고용서비스·직업훈련 투자 확대 등 ✓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입니다.





한눈에 보는 2023년 일자리사업 예산

올해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은 30조 3,481억 원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미래 경쟁력 확보와 고용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중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미래 경쟁력 확보 및 고용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중점으로!

2023년 일자리사업 예산은 작년 대비 3.9% 감소한 규모이며, 24개 부처(청)의 181개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유형별로는 직업훈련 분야가 전년 대비 10% 증가하였으며,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회복 기조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직접일자리는 총 104.4만 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장애인 고용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 경기둔화 전망에 따라 노동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3년 일자리사업 핵심 포인트!

1

신산업·전략산업
직업훈련 확대

2

청년 취업지원과
기업·구직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3

고용안전망 확충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4

지역고용 활성화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2023년 일자리 예산 유형별 규모(억 원, 만 명)

	2022년	2023년	증감
전체(181개)	315,809	303,481	(Δ12,345)
1. 직접일자리(29개)	32,079	32,244	(+165)
* 직접일자리 인원	(103)	(104.4)	(+1.4)
2. 직업훈련(41개)	24,785	27,301	(+2,516)
3. 고용서비스(36개)	18,922	17,745	(Δ1,177)
4. 고용장려금(24개)	65,247	50,634	(Δ14,613)
5. 창업지원(26개)	28,376	31,484	(+3,108)
6.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13개)	137,732	134,404	(Δ3,328)
7. 지원고용 및 재활(장애인, 12개)	8,668	9,669	(+1,001)



2023년 일자리 예산 유형 비중

직접일자리	10.6%	32,244억 원
직업훈련	9.0%	27,301억 원
고용서비스	5.8%	17,745억 원
고용장려금	16.7%	50,634억 원
창업지원	10.4%	31,484억 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44.3%	134,404억 원
지원고용 및 재활	3.2%	9,669억 원



- 1. 저소득·취약계층
- 2. 일하는 부모
- 3. 청년
- 4. 고령자
- 5. 장애인

대상별 특성에 맞춰 세분화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전망과 대상별 맞춤형 지원에 힘씁니다.
저소득·취약계층부터 일하는 부모, 청년, 고령자, 장애인까지
정책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하나씩 알아볼게요!



두텁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합니다!



고용안정과 노무관리 측면의 특수성이 있는 특고·예술인에 대해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을 폐지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한 전체 특고·예술인을 지원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한국형 실업부조의 역할을 공고화하고 재취업 유인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① (사회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월 보수 230→260만 원 미만, 지원대상 +17.5만 명)합니다. 또한 고용안정·노무관리 측면의 특수성이 있는 특고·예술인에 대해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을 폐지하고 고용보험 가입한 전체 특고·예술인을 지원합니다.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22> 1조 466억 원 → <'23> 1조 764억 원

-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한국형 실업부조의 역할을 공고화하고 재취업 유인을 강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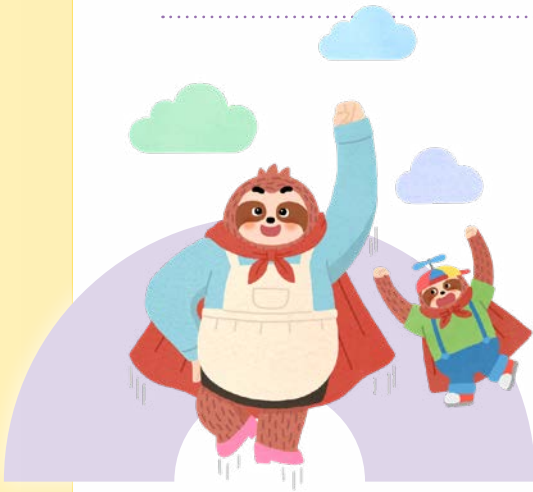
◦ (구직촉진수당) <'22> 1인당 50만 원 → <'23> 고령부모·미성년 등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 (조기재취업수당) <'22> 2개월 내 취업 시 50만 원 지급 → <'23> 3개월 내 취업 시 잔여 수당의 50%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 <'22> 1조 4,965억 원 → <'23> 1조 2,255억 원

- ③ (플랫폼종사자)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대응해 플랫폼종사자의 일터개선 및 실태조사, 특화훈련 등 지원을 확대합니다.

◦ 플랫폼종사자 보호지원 : <'22> 19억 원 → <'23> 20억 원
◦ 플랫폼종사자 특화훈련 : <'23> 160억 원(16만 명)

2. 일하는 부모

일하는 부모 실질적 지원을 확대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를 확대하고, 3+3 육아휴직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가사서비스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가사서비스기관 인증에 대한 유인을 제고해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가능케할 계획입니다.

① (육아지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확대, 3+3 육아휴직제 본격 시행 지원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22> 417억 원(0.8만 명) → <'23> 937억 원(1.8만 명)
- 육아휴직급여 : <'22> 1조 5,807억 원(12.8만 명)
→ <'23> 1조 6,964억 원(13.2만 명)

② (가사서비스) 사회보험료 지원,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가사서비스기관 인증에 대한 유인 제고 → 체계적 품질관리 가능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22> 17억 원(5천 명) → <'23> 53억 원(1.3만 명)
-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 <'23> 14억 원

타겟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년 도약보장 패키지」를 통해 재학생부터 경력설계·훈련·일경험 등을 제공하고, 구직 단념자를 대상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대합니다. 직무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를 고려해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기업 참여를 통한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① (맞춤형 서비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신설로 대학 재학생부터 경력설계·훈련·일경험 서비스를 제공, 구직단념자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도 확대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 <'23> 86억 원(3만 명)
 - 청년도전지원 : <'22> 76억 원 → <'23> 408억 원
- ② (일경험 개편) 직무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를 고려하여,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 및 기업 참여를 통한 질적 고도화 추진
 - 청년일경험지원 : <'22> 50억 원 → <'23> 553억 원
 - 청년친화형기업ESG지원 : <'22> 170억 원 → <'23> 251억 원

4. 고령자

계속고용을 촉진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합니다!

고령자의 신규채용 또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을 확대해 고용을 촉진합니다. 중장년일자리센터-산업협회-단체 등이 협력하여 특화교육·채용지원을 통한 사업주 컨설팅 패키지를 신설해 취업지원에 나섭니다.



① (고용촉진) 고령자 신규채용 또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 기업에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 확대

- 고령자고용지원금 : <'22> 54억 원(6천 명) → <'23> 558억 원(5.3만 명)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 <'22> 108억 원(3천 명) → <'23> 268억 원(8.2천 명)

② (취업지원) 중장년일자리센터-산업협회·단체 등이 협력하여 특화교육·채용지원을 통한 사업주 컨설팅 패키지 신설(360개 기업)

- 중장년층 취업지원 : <'22> 213억 원 → <'23> 223억 원

③ (노후소득) 3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지원 확대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운영 : <'22> 64억 원 → <'23> 133억 원
(지원 대상) 최저임금의 120% 미만 근로자, (지원 내용) 사업주 부담금의 10% 지원

기업고용유인을 제고하고 장애인근로자취업애로를 해소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고용촉진을 지원합니다. 장애인근로자의 디지털 전환 대응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 맞춤훈련센터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을 확대해 다양한 장애인 취업애로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① (고용촉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확대 등 장애인 고용촉진 지원

- 장애인고용장려금 : <'22> 2,624억 원 → <'23> 2,977억 원
(지원수준) 남·경증 30→35만 원, 여·경증 45→50만 원, 남·중증 60→70만 원, 여·중증 80→90만 원
- 장애인인턴제 : <'22> 32억 원(월 최대 80만 원) → <'23> 46억 원(월 최대 100만 원)

② (취업애로 해소)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지원인 지원 및 출퇴근 비용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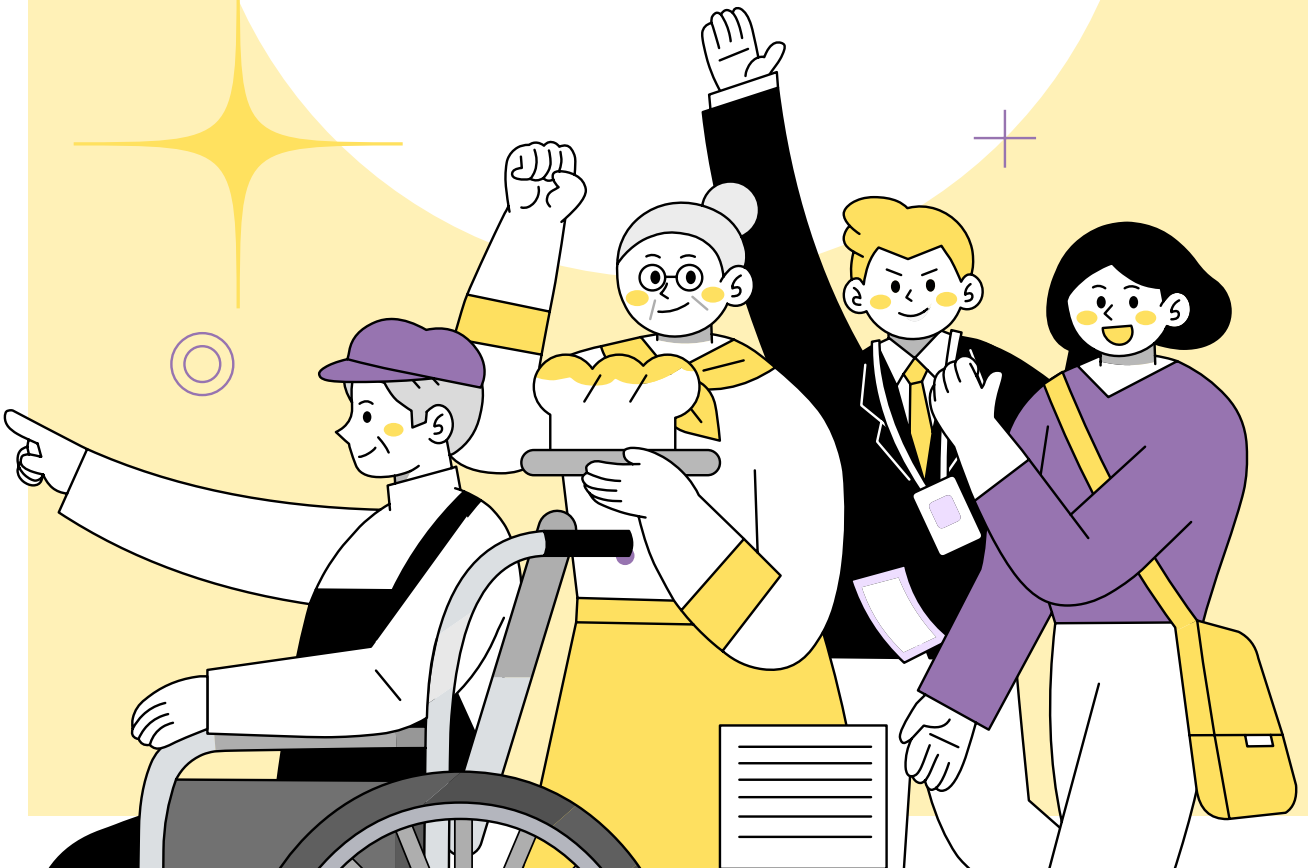
- 근로지원인 지원 확대 : <'22> 2,047억 원(1만 명) → <'23> 2,270억 원(+500명)
-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 <'22> 26억 원(3,9천 명) → <'23> 69억 원(15천 명)
<'22>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 <'23>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확대



시대 흐름에 발맞춘 정책을 추진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과 인식 변화에 발맞추어
고용노동부는 어떤 정책들을 추진할까요?
지금 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디지털, 안전, 공정에 발맞춘 주요 정책들을 소개합니다.

*√은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 편성액 및 추진계획입니다.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디지털 선도기업, 민간혁신훈련기관, 폴리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디지털·신기술 인재 양성을 추진합니다. 또한 폴리텍에 반도체학과를 신설하고, 다수 중소기업이 첨단 산업 분야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공동훈련센터를 확대합니다.

- ✓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 <'22> 3,248억 원, 2.9만 명 → <'23> 4,163억 원, 3.7만 명
- ✓ 폴리텍 하이테크 과정 : <'22> 62억 원, 1.2천 명 → <'23> 77억 원, 1.5천 명
- ✓ 한국폴리텍대학 운영 지원 : 반도체학과 신설(+10개, 350억 원)
- ✓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반도체 + 유관 신기술 포함) :
대중소공동훈련센터(5개, 50억 원), 일학습공동훈련센터(10개, 100억 원)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을 강화합니다!

‘기업발굴-맞춤형 훈련-역량개발 로드맵’ 등 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전 단계를 전담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개별기업의 특성·역량에 맞게 훈련과정을 개발·제공합니다. 이에 필요한 훈련비·훈련강사·컨설팅 등도 지원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도입합니다.

- ✓ 능력개발전담주치의 : <'23> 71억 원, 15개소
- ✓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 : <'22> 82억 원, 1,025개소 → <'23> 134억 원, 1,920개소
- ✓ 기업직업훈련카드 : <'23> 307억 원, 1.3만개소



산재 취약부문 중심 지원을 강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 위험요인 개선을 지속 지원하되, 특히 위험공정 개선 중심으로 투자 강화하고 원·하청 상생을 통한 협력사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기술지원 중심의 공생협력프로그램을 재정지원까지 확대·개편합니다. 중소기업, 건설현장 등의 산재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발굴하여 영세사업장에 보급·확산합니다.

- ✓ 클린사업장조성지원 : <'22> 4,509억 원 → <'23> 5,070억 원
- ✓ 공생협력프로그램 : <'22> 5억 원(평가·기술지원) →
<'23> 99억 원(협력사 500개소 대상 재정지원)
- ✓ 스마트안전장비 발굴·확산 : <'23> 250억 원(2,890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작업환경 측정비용 지원 대상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기존 30인 미만) 업무상 사고·질병 예방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지원, 근로자 건강센터(분소 1개소) 및 직업 트라우마센터(1개소)를 증설합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확대합니다.

- ✓ 유해작업환경개선 : <'22> 793억 원(74천개소, 53만 명) →
<'23> 822억 원(88천개소, 67만 명)
- ✓ 휴게시설 : <'23> 223억 원, 6,588개 사업장
- ✓ 근로자건강센터 : <'22> 204억 원(건강센터분소 21개, 트라우마 13개) →
<'23> 208억 원(각 1개소 증설)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22> 58억 원(2천개소) → <'23> 382억 원(16천개소)



임금·근로시간 체계 개편을 지원합니다!

한국형 O*net(직무별 시장임금 정보시스템) 구축 및 설계하고 업종별 시장임금 조사(4개 업종) 실시 등 상생형 임금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기업 스스로 사업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 임금체계 및 근로시간 체계를 선택·도입할 수 있도록 일터혁신 컨설팅을 확대 지원합니다.

- ✓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 <'22> 7.7억 원 → <'23> 24.3억 원
- ✓ 일터혁신 지원 : <'22> 257억 원(2,836건) → <'23> 280억 원(3,100건)



공정 노동시장을 조성합니다!

능력중심채용모델 개발·보급(20개), 기업 컨설팅(150개), 공감채용 매뉴얼 배포 등 지원 → 공정한 채용 관행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의 노동기본권 침해사건에 대한 무료상담·권리구제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물량 1.9만 건→4만 건, ◦ 대상 ~29세→~34세). 아울러, 서면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예방 등 현장의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개선 및 권리구제 지원을 지속합니다.

- ✓ 공정채용인프라 구축 : <'22> 13억 원 → <'23> 38억 원
- ✓ 근로조건개선지원 : <'22> 158억 원 → <'23> 167억 원

일이 변화하면 공간도 변화한다

유현준 건축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일하는 공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건축가 유현준 교수를 만나 일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Q _ 요즘 근황이 어떠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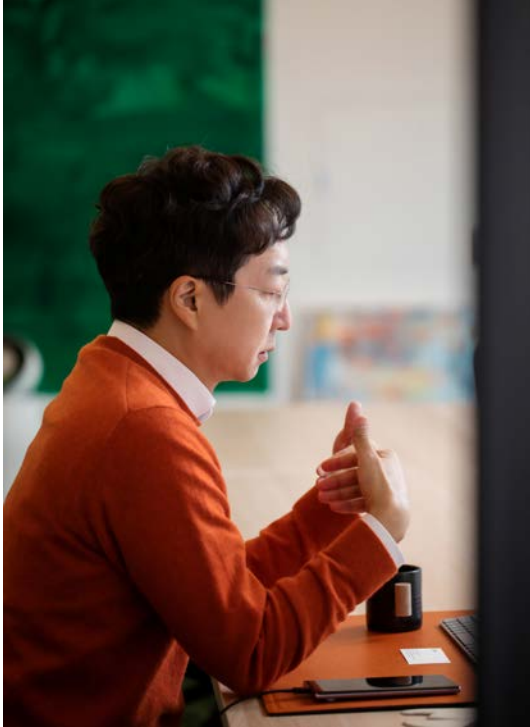
가장 큰 변화는 유튜브 채널 <설록현준>으로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겠네요. ‘공간’으로 세상을 보는 시선을 이야기하는데 구독자분들이 좋은 피드백을 주고 계세요. 얼마 전 구독자 78만 명을 넘어서서 무척 기뻐합니다.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을 유튜브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Q _ 공간을 탐구하는 건축가는 어떤 매력이 있는 직업인지 궁금합니다.

건축가로서 가장 큰 매력은 미래를 내다보며 산다는 점입니다. 건축가를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새로운 공간에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곳에 ‘이런 것을 만들면 어떨까?’ 하고 상상하죠. 그 상상을 구현하기 위해 힘을 합하는 작업들이 참 매력적이에요. 완성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도요. 빨라도 1년, 길게는 4~5년, 더 오래는 10년까지 걸리는 건축도 있어요. 건축가는 그 지난한 시간 동안 미래를 상상하고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죠. 모든 건축이 같지 않는 것도 장점입니다. 건축주와 용도, 조건이 다른 환경에서 각자의 쓰임새를 가진 건축은 모두 다른 결과물을 냅니다. 이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모든 ‘일 공간’이 ‘사무실이 아닌 곳’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가 일하는 공간은 앞으로 어느 한쪽으로 집중되기보다는 사무실, 공유 오피스, 집, 카페 등 다양한 형태로 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Q _ 저서 <공간의 미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의 변화를 언급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하는 공간’은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하며 굉장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일하는 장소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토지가 고정돼 있고 직장 동료들은 옆집 이웃이었으며 협업이 생활화됐었죠. 모내기를 하거나 물길을 내야할 때 품앗이를 해야 했으니까요. 때문에 이웃, 즉 직장 동료와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었을 테고요. 하지만 산업화 이후엔 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일단 옆자리 동료들은 다른 동네 사람으로, 일이 끝나면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평생직장은 더더욱 없어졌고요. 그런데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과거의 습성 때문에 직장 동료와 잘 지내야 한다는 생각이 다른 사회보다 더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 때문에 회식도 자주 하죠. 우리는 직장 동료와 밥을 같이 먹고 가족 같은 느낌을 오랜 시간 유지해 온 민족입니다. 최근엔 젊은 세대로 갈수록 그런 성향은 점점 열어지고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만큼 일하는 ‘이익 사회’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Q _ 말씀처럼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최근 일하는 공간의 개념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업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은 장소의 구애를 덜 받게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집에서 일하고 결과물을 가지고 와도 되는 업종이 많죠. 하루에 두세 시간씩 출퇴근에 힘을 쏟지 않아도 되니 일의 능률도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집의 환경이 열악한 사람은 집보다는 카페, 카페보다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어 하기도 해요. 재택근무가 가능한 성격의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35% 정도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아직 65%의 일자리가 현장에서 일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모든 ‘일 공간’이 ‘사무실이 아닌 곳’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어디서든 컴퓨터로 처리



할 수 있는 일은 언젠가 시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이라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일하는 공간은 앞으로 어느 한쪽으로 집중되기보다는 사무실, 공유 오피스, 집, 카페 등 다양한 형태로 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Q _ 공유 오피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공유 오피스야말로 일하는 공간의 개념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회사는 공유 오피스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확장되면 공유 오피스에 계속 머무르려는 사업주는 적을 것입니다. 쑥쑥 크는 성장하는 어린아이의 옷을 함부로 살 수 없는 것과 같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각자의 방을 만들어주잖아요? 비슷한 이치입니다.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다가도 사업이 커지면 단독 사무실을 갖고 직원들의 공간을 마련하려

고 노력하는 곳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어떤 공간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곳인가 하는 고민입니다. 그 답은 사업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무척 다르겠죠.

Q _ 일하기 좋은 공간은 어떤 곳일까요?

7~8년 전쯤 사무실에 고정 자리가 없고 매일 원하는 자리를 골라 일하는 ‘스마트 오피스’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의 근로자가 사무실에 자신의 자리가 없는 것에 불만을 느꼈습니다. 선진적으로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했던 독일도 최근에는 이를 폐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안정감이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가 바로 안정감입니다. 하루의 반을 보내는 업무 환경에서도 안정감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겠죠. 내 자리가 없다는 불안감은 업무 능률을 떨어지게 합니다.

업무 효율이 좋은 공간은 일하는 자리가 확실히 있으면서도,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한 라운지나 휴게 공간이 적절히 섞인 곳입니다. 업무하는 자리는 양옆이 막혀 있고 타인에게 방해 받지 않는 독립적인 공간이 좋습니다. 독서실이 칸막이로 막혀 있고 간혹 집중력을 더 높이기 위해 작은 부스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저만 해도 책을 쓰는 공간은 대부분 비행기나 기차 안이거든요.

Q _ 실제로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혁신 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들 대부분이 직원들의 자리와 더불어 휴게 시설이나 라운지에 신경을 쓰는 것이 느껴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공간에 둘 다 갖추는 쪽으로 흐름이 변화하고 있는 듯합니다.

맞습니다. 다양한 공간을 마련해 병행할 수 있게끔 선택지를

넓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들이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임대료가 비싸고 공간이 좁아서 디자인적으로 꾸미는 것은 아직 많이 부족해요. 일하고 쉬는 공간이 잘 어울릴 수 있게 디자인한다면 더 좋은 업무 능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운지까지 만들기 힘들다면 휴게 공간을 잘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Q _ 휴게 공간은 어떻게 꾸미는 것이 효과적인가요?

일반적으로 휴게 공간 혹은 탕비실은 대부분 벽을 보고 있습니다. 보통 벽을 보며 커피를 타거나 복사기 옆에서 물을 마시죠. 가능하면 햇빛이 잘 드는 곳에 휴게 공간을 마련해보시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저희 건축사무소의 경우도 회사에서 햇빛이 가장 잘 드는 곳에 휴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주광성 동물인 인간은 햇빛과



“업무 효율이 좋은 공간은
일하는 자리가 확실히 있으면서도
라운지나 휴게 공간이
적절히 섞인 곳입니다.
조명에도 신경을 써보세요.
휴식할 때는 붉은 조명이
업무에 집중할 땐
푸른 조명이 도움이 됩니다.”



가까이 있을 때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주로 모니터를 보고 일하는 사무실에 햇빛이 많이 드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햇빛이 부족한 곳을 사무 공간으로, 햇빛이 잘 드는 곳을 휴게 공간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게 공간에 마주 보고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나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 직원들이 대화하며 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죠. 한 사이트에 의자가 있다면 반대 사이드엔 스톨을 두고 그날의 기분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겠고요. 대신 의자의 높이는 맞춰서 서로 눈을 마주치며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Q _ 최근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효율적이지만, 반대로 집에서는 일이 잘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을 '일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때 좋은 팁 있을까요?

재택근무는 출퇴근 등에 분명 장점이 있지만, 잠을 자고 쉬는 공간이던 집에 '업무'라는 새로운 기능을 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땐 먼저 청소부터 하는 게 좋아요. 생활의 요소가 최대한 눈에 안 보이도록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거나 수납해 두세요. 가능하다면 밥을 먹는 테이블과 업무하는 테이블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힘들다면 큰 테이블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탁 트인 곳보다는 벽 혹은 고개를 돌리면 창문이 보이는 곳이 업무 효율에 더 좋습니다.

조명에도 신경을 써보세요. 우리는 푸른빛에는 긴장감을, 붉은빛에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동쪽에서 해가 뜰 때는 파장이 짧아져 푸른빛이 강하고 서쪽으로 해가 질 때는 반대로 붉은 빛이 강해집니다. 때문에 인간은 푸른빛을 보면 '일어나서 움직여야 한다', 붉은빛을 보면 '잠을 자야겠다'고 생각하죠. 그러니 쉴 때는 적당히 붉은기가 있는 조명을, 업무에 집중해야 할 땐 형광등이나 학습용 스탠드처럼 푸른빛이 도는 조명을 이용해보면 집에서 업무와 휴식을 병행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Chapter 2

내 일 로



부



업



우리 함께 희망찬 내일로

가끔은 검색 말고 사색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이라 불리던

고(故) 이어령 선생은

살아생전 어느 인터뷰에서

“검색하지 말고 사색하라”는

이야기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검색’으로 해결했을까요?

가끔은 시간을 내어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검색으로는 찾을 수 없는 답이

거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노후의 확실한 보험 도전과 성취

숲 해설가 고무중

공무원으로 정년 퇴임한 고무중 씨는 인생 2막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과감한 도전을 통해 세 개의 자격증을 따냈습니다. 현재 국립수목원의 '숲길 등산 지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고무중 씨를 만나 그가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에 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어떤 분은 ‘올해 환갑인데 정말 도전할 수 있겠느냐? 공연히 시간과 돈 낭비 말고 다른 길을 찾으라’고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오기가 생기더군요. 남은 인생에 아쉬움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두 마리 토끼를 잡다

40여 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며 퇴임을 목전에 뒀던 고무중 씨. 한동안 자괴감과 불안함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보람과 아쉬움을 남긴 채 어김없이 정년퇴직의 순간이 다가왔고, 정작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공무원 연금 덕분에 경제적 부담은 훨씬 줄었지만,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공허함은 채우지 못한 것이죠. 게다가 건강 문제도 겹쳤습니다.

“당뇨와 고지혈증 등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공무원 생활 동안 받은 스트레스로 몸 관리를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죠. 속상함에 억울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후회만 하고 있을 순 없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2막에는 꼭 하고 싶은 일을 하되, 건강을 회복한다는 큰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고 싶은 일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무중 씨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찾고 고용노동부 직원과 상담 및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사람과 만나 인생의 후반기에 대한 스케치를 그린 고무중 씨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해 ‘자격증 만들기 프로젝트’에 돌입합니다. 그가 도전한 자격증은 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산림기사였습니다. 이른바 ‘숲과 산림 분야의 트리플 크라운’이라 불리는 자격증들이었죠.

“어떤 분은 ‘올해 환갑인데 정말 도전할 수 있겠느냐? 공연히 시간과 돈 낭비 말고 다른 길을 찾으라’고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오기가 생기더군요. 지난 40년의 공직 생활이 보람과 아쉬움을 함께 남겼다면 이제 남은 인생에 아쉬움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후회 없이 도전하고 싶었죠.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인생 후반기를 슬기롭게
살아가려면 자식이나
연금보다 더 확실한
효자상품인 유망자격증에
도전하여 합격의 기쁨을
맛보길 추천합니다.”

드디어 손에 거머쥔 트리플 크라운!

노력 끝에 고무중 씨는 2년 만에 자격증 시험에 모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숲해설가로 일하며 지역 노인복지관 어르신을 모시고 둘레길을 산책하고 관내 장애아동 주간보호센터의 어린 학생들에게 자연물을 이용한 학습재료 만들기 수업을 했습니다. 고무중 씨는 계절별로形形色색의 야생화, 나뭇잎, 나뭇가지, 열매 등을 준비하여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는 이후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할 만큼 힘들었어요. 환갑의 나이에 이렇게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부어 합격한 것이 기적인 것만 같았죠. 이 자격증으로 워크넷을 통해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산림치유지도사로 일했습니다. 산을 찾는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재충전의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지요.”

가장 힘들게 따낸 것은 산림기사 자격증이었습니다. 같이 시험을 봤던 임학과 대학생들도 낮은 합격률을 보일 정도로 힘들다는 산림기사 자격증을 고무중 씨가 따겠다고 했을 때 주위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한 번의 낙방으로 좌절을 맛보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었죠.

“저는 세 개의 자격증을 ‘보물단지’라고 불러요. 보물단지를 가지고 지금은 국립수목원에서 숲길 등산지도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둘레길을 모니터링하면서 탐방객 보호와 둘레길 관리 등을 하며 보람찬 시간을 보내고 있죠. 끝없이 도전하며 낙방과 합격을 반복했지만, 결과적으로 공무원 연금보다 소중한 세 개의 자격증을 손에 쥐었어요.”

사회를 위한 인생 3막

인생 2막을 치열한 노력과 달콤한 열매로 장식한 고무중 씨는 이제 인생 3막의 스케치를 그립니다. 안산상공회의소 중앙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받았던 교육 중 “인생 3막은 봉사활동으로 살아가면 좋다”고 했던 내용이 고무중 씨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수혜자로서 많은 혜택을 누렸으니 이제 사회에 진 빚을 환원해야 한다’는 그의 평소 생각과 봉사활동은 어딘가 딱 맞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고무중 씨는 벌써 시간을 쪼개 지역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 양로시설 운영위원, 재가복지센터 운영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파출소 등산 폴리스 회원, 적십자 봉사회원, 새마을문고 위원, 주민자치회원 등 각 분야에서 재능기부와 봉사의 마음을 이어가면서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고무중 씨는 마을공동체 ‘의정부 숲 이존 연구소’를 만들어 의정부의 자랑거리인 소풍길 정비사업을 한 것을 특히 보람찬 순간이었다고 회상합니다. 지금도 그 소풍길에는 나무 이름표, 둘레길 리본, 아름다운 시화 등이 게시되어 오가는 시민들의 눈길을 잡고 있습니다. 숲 해설가로 일하며 어르신, 아이들과 함께 스트레칭, 제기차기, 노래를 부르며 즐



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아이들에게 새총놀이나 투호놀이, 비석 치기 등의 전통 놀이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고무중 씨는 평소 배워둔 하모니카를 연주 하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앵콜의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중장년의 보람찬 시간은 절대로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통해 재정의 기반을 만들고 사회적 참여와 봉사활동의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하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해질 겁니다. 인생 후반기를 슬기롭게 살아가려면 자식이나 연금보다 더 확실한 효자상품인 유망자격증에 도전하여 합격의 기쁨을 맛보길 추천합니다.”

Tip.

고무중 씨가 전하는 인생 2막 설계 노하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공공기관의 인생설계 교육을 120% 활용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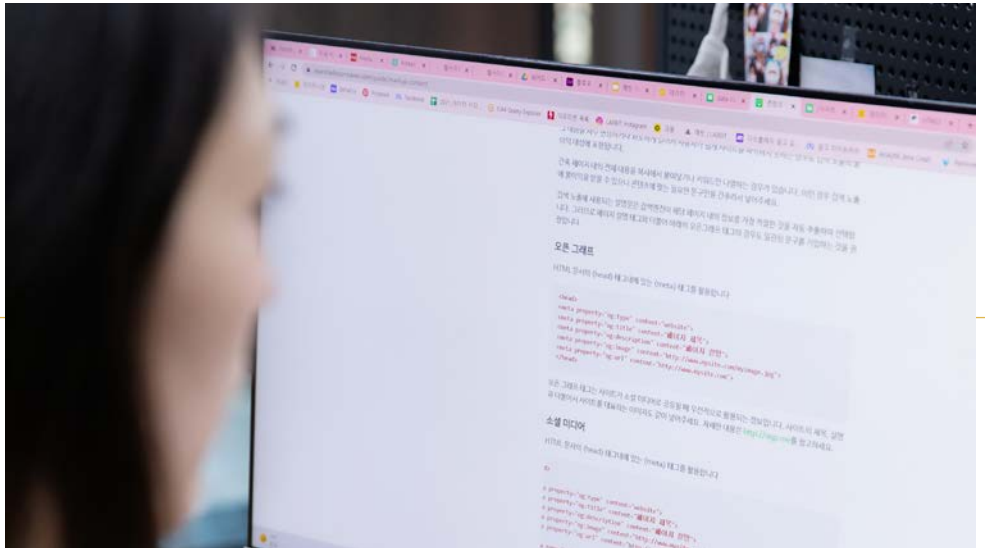
퇴직 후 쉽게 찾아오는 공허함과 방향, 혼돈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리한 뒤, 할 수 있는 일에 몰두해야 해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공공기관의 인생설계 교육을 120% 활용해 보세요. 기회는 먼저 찾아 나서는 자에게 길을 보여주는 법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신세를 한탄하기에 인생 2막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중장년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니, 자리를 털고 일어난 일이나 움직이기 바랍니다.

새로운 내일로 향해가는 그로스 해커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자 신은진



어렵게 구한 첫 직장에서 이직 권유를 받게 된 신은진 씨. 그리고 혼란과 위기 속에서 우연히 만난 국민내일배움카드. 그 후 신은진 씨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충격의 이직 권유

‘입사 9개월 차 신입사원. 이제 나가라고요?’

이것은 재직했던 회사의 대표로부터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이직해도 괜찮다”라는 말을 듣고 난 후 신은진 씨가 만든 영상의 제목입니다.

신은진 씨는 착실하게 대학 생활을 하고 졸업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꿈꿨던 취업시장을 뚫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다시 대학에 가겠다고 수능 준비에 뛰어들기도 했죠. 그러다 어렵사리 입사한 첫 직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9개월 만에 이직 권유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위기 상황이죠. 이제 좀 편해질까 싶었는데, 위기가 또다시 찾아왔어요. 당시 전세대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부모님과 떨어져 지냈기에 모든 비용과 생활을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눈앞이

깜깜해졌고, 머릿속에 경보가 울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 위기가 기회라는 말도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인생에 닥친 역풍을 이용해 앞으로 나아가 보자며 자신을 위로했어요.”

당시 은진 씨는 마케팅 직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후의 커리어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은진 씨는 채용 공고 사이트를 수시로 오가며 마케터에게 요구하는 지원 자격 항목을 수집했습니다. 간단하게 간추린 지원 자격과 우대 사항은 컴퓨터 활용 능력, 외국어, 영상 편집, 데이터 분석 능력 등이었습니다. 은진 씨는 그때부터 부지런히 컴퓨터 자격증을 따고 외국어 시험에도 응시하며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케팅 직무의 전문성을 쌓기 위해선 데이터 분석 능력이 필수였던



데, 다른 자격요건과 달리 데이터 분석은 관련 톨도 많고, 한 가지 톨 안에 내용도 방대해 독학으로 실무에 적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지요.

열정으로 불태운 수업

은진 씨는 데이터 분석 능력 분야는 꼭 전문가에게 배워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루트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직장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다 국민내일배움 카드로 학원에 다녀보란 조언을 얻게 됩니다. 은진 씨는 “순간 머릿속에 안개가 걷히는 느낌”이었다고 이때를 회상합니다. 곧바로 국민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집과 가까운 학원을 찾아 ‘마케팅 입문자를 위한 구글애널리틱스(GA) 디지털 마케팅’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학원에 다니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가 있긴 했지만,

사실 기존의 학원비 전액을 다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수강을 망설였을 거예요. 그러나 비용을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받고 저는 그중 일부의 금액만 부담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적은 돈으로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어 정말 좋았어요.”

학원을 등록한 뒤 은진 씨는 누구보다 열심히 수업에 임했습니다. 금요일까지 쉴 틈 없이 일하고 나면 주말엔 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꼭 공부해야 한다는 간절한 생각에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 마치는 수업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재직 중이던 회사 사이트에 배운 내용을 적용할 수 있을지 강사님께 여쭙보기도 했습니다.

“강사님께선 따로 점심시간까지 내어주시며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 주셨어요. 실무자로서 해주시는 애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 책으로만 읽는 것보다 훨씬 이해가 쉬웠죠. 그러면서 강사님, 수업 동료들과 친

해져 다른 기업에서는 GA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GA를 실무에 적용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등의 생생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위기와 함께 온 기회

수업이 어려웠던 만큼 하나씩 알아가는 성취감은 더욱 컸습니다. 은진 씨는 점점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관련 직종인 ‘그로스 해커(Growth Hacker)’라는 직무를 알게 되었고, 순식간에 그로스 해커에 매료됐습니다. 새로운 목표가 생긴 순간이었습니니다.

“위기의 ‘기’와 기회의 ‘기’가 같은 한자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로스 해킹(Growth Hacking)은 ‘성장(Growth)’과 ‘해킹(Hacking)’의 합성어로, 상품과 서비스의 개선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반영해 사업 성장을 유도하는 마케팅 기법입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그로스 해커인 것이죠. 미래 유망직종 중 하나로 손꼽히는 그로스 해커는 마케팅 프로세스와 온라인 데이터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학원의 모든 과정을 수료했고 잘 마무리했지만, 재직 중이던 회사의 일이 바빠졌고 배운 것을 실무에 적용하려 노력해도 당장 일에 치여 무산되기 일쑤였어요. 그래도 그로스 해커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틈틈이 책을 찾아봤죠. 어느 날 평소처럼 퇴근길에 수신문자를 확인하다가 ‘그로스 해킹 직무’ 채용공고가 등록됐다는 소식을 발견했어요.”

해당 채용공고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평가에 따라 면접 후 채용되는 프로세스였습니다. 은진 씨는 주말 내내 과제에만 매달렸습니다. 학원에서 배운 모든 지식을 동원하고 관련 책도 빌려 보며 지칠 때까지 수정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합격이었습니다.

“처음 새 명함을 받아드는 순간, 그렇게 바라왔고 머릿속으로 되뇌었던 직함이 새겨져 있었어요. 여러 감정이 들었죠. 처음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던 충격, 탈락한 채용공고 리스트를 정리하며 내쉬던 한숨, 토요일마다 학원 수업에 늦을까 봐 잔걸음으로 걸어가던 아침 그리고 마침내 바라던 직무가 새겨진 명함까지. 지금은 오히려 저에게 그 위기가 왔었던 것이 참 감사해요. 위기(危機)의 ‘기’와 기회(機會)의 ‘기’가 같은 한자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되어준, 국민내일배움카드와 훈련기관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직원의 생각과 성장이 회사의 생각이고 성장이다

법무법인 비트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공대 출신의 젊은 변호사들이 모여 만든 ‘부티크 로펌’ 법무법인 비트는 IT 스타트업 자문 분야에서 기록적인 성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젊은 부티크 로펌의 고민과 혁신, 그리고 성장 이야기. 같이 한번 만나볼까요? 모든 구성원이 웃으며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곳, 여기는 법무법인 비트입니다.

웃으며 다니는 회사를 꿈꾸다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청년친화강소기업’인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 가장 주목받는 ‘부티크 로펌’ 중 하나입니다. 부티크 로펌이란, 규모보다 ‘전문성’에 초점을 맞춰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소형 로펌을 일컫습니다. 일부 영역에선 대형 로펌보다 빠른 성장을 보이는데, 그 선두에 있는 법무법인이 바로 비트입니다. ‘벤처 앤 테크놀로지(Venture and Technology)’라는 의미의 사명을 가진 비트(VEAT)는 2015년 문을 연 이후 7년간 엄청난 성장을 이뤘습니다. 특히 투자, M&A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디어그룹 블룸버그에서 집계한 ‘2021년 M&A 법률 분야 자문 실적 순위’에서 거래 총수를 기준으로 4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웬만한 대형 로펌보다도 많은 기록으로, 부티크 로펌 중에서도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수치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를 전공한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했습니다. 창립 이후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16명의 변호사, 외국 변호사, 고문변호사와 4명의 회계·기술·경영 고문과 함께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M&A, 투자, 게임,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합니다.”



“비트의 성장과 도전은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
유연하게 적용한
덕분이라고 자부합니다.”

최성호 대표변호사는 학창 시절부터 게임을 즐겼습니다. 그는 게임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어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그러나 입학 후 자신보다 우수한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좀 더 차별화된 분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고민 끝에 게임과 평소 관심 있던 IT산업을 주요 무대로 하는 법률가가 돼야겠다고 결심하고 고시를 준비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변호사 3년차에 저만의 색깔을 가진 회사를 만들고 싶어 IT 스타트업 분야에 특화된 로펌 ‘비트’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웃으면서 다닐 수 있는 회사를 만들자!’를 모토로, 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제도와 이벤트를 다양하게 구상하고 모두의 의견을 늘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잘 쉬어야 일도 잘 하죠!

최성호 대표변호사의 말처럼 법무법인 비트는 젊은 직원들이 행복하게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지원합니다. 매년 회사 차원에서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검진날은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넓고 쾌적한 휴게 시설을 마련해두고 근무 중에도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안마 의자, TV, 만화책, PC룸 등을 비치했습니다. 또한 문화생활비 지원, 장기 근속자 리프레시 제도, 국내외 워크숍 등을 통해 직원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덕분에 모두 20~30대 청년으로 구성된 직원들은 젊은 에너지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혁신



과감한 도전으로 가능성 확장!

법무법인 비트의 성장세는 그 범위가 더욱 확장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크로스보더(Cross Border) 거래에 자주 자문하며 최근 해외투자신고센터를 개설했고,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을 출범해 저작권·지식재산권 분야 법률 서비스 강화에도 나섰습니다.

“저희는 비트만의 차별화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 실적을 향상하고 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해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이는 모두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 유연하게 적용한 덕분이라고 자부합니다. 저희는 ‘직원의 생각과 성장이 곧 비트의 생각이고 성장이다’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더 나은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적인 복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항상 고민합니다. 차후엔 ‘개개인 맞춤 고충 면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획일적인 면담이 아니라 각자 자신에게 처한 상황에 맞추어 회사 차원에서 면밀히 신경을 쓰는 것이죠. 직원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서도 불편 없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비트는 놀라운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LB 한국 법률 대상(ALB Korea Law Awards)에서 2년 연속으로 ‘올해의 딜(Korea Deal Firm of the Year)’, ‘올해의 부티크 로펌(Boutique Law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되면서 비트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농촌 마케팅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다

메타비



이번 달에는 도시와 농촌이 유기적으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기업, 메타비를 찾아가봅니다.



메타비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재미있는 게임
형태로 만드는 등
농촌 마케팅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농사 빼고 다 하는 곳!

농촌의 가치를 발견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기업 ‘너와 나의 농촌’이 지난해부터 ‘메타비’라는 사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2015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과정 육성 창업팀’에 선정된 이후 1년간 인큐베이팅 코스를 거쳐 2016년, 우수상 수상과 함께 고용노동부의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됐습니다. 이후 농촌 디자인 쇼핑몰인 ‘너나농 디자인’을 오픈하고 농촌 체험 프로그램 ‘옥수수 미로’를 상표등록 하는 등의 활동으로 2019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메타비의 이상열 대표가 농촌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지난 2009년 교육 컨설팅 일을 할 때였습니다. 당시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SNS 마케팅 시장이 활발한 변화를 겪던 시기였습니다. 기업에 전자상거래 강의를 나가면서 농촌을 접하게 된 이상열 대표는 지역 농부들이 제대로 된 마케팅을 못해 좋은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당시 운영하던 회사를 접고 2009년부터 개인사업자로 농촌 마케팅 및 컨설팅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혼자 하기는 버거워질 만큼 일이 커졌어요. 디자인을 하거나 체험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해 줄 사람이 필요했죠. 덕분에 ‘너와 나의 농촌’이 시작됐어요. 조직을 구성할 때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하고 싶었습니다. 고된 농사를 짓고 질 좋은 수확물을 얻지만, 제대로 된 가격을 받기 힘든 농촌의 현실을 깨달은 뒤, 이걸 세상에 잘 알려야겠다는 사명감 같은 것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시작되어 지금의 메타비로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서 SNS 마케팅과 블로그 강의, 정보화 교육을 비롯해 브랜드와 유통 마케팅 관련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농업인들의 스토리텔링을 조금 더 소비자 위주로 돕거나 농촌 마을 자치센터의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데도 메타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노하우를 담아 <딸기 스티커 워크북>, <옥수수 워크북>, <약탈자의 소중한 친구, 꿀벌>, <사과 소소> 같은 도서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열 대표의 농담처럼 메타비는 ‘농사 빼고 다 하는’ 기업입니다.

옥수수밭에서 하는 방탈출?

“우리가 몰랐던 수준 높은 농촌의 가치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농치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농촌을 소재로 하는 여러 콘텐츠를 발굴했고 이를 도시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다 보니 점점 농촌을 잘 지키고 알려야 하는 것은 물론 요즘 트렌드 키워드처럼 ‘로컬’

이라는 개념 자체를 확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것이 바로 지난 2022년 1월 메타비로 사명을 변경한 이유입니다.”

최근 메타비가 가장 집중하는 사업 중 하나는 농촌 체험 분야입니다. 특히 농촌과 도시가 함께 교류하는 사업모델로 ‘옥수수미로’ 프로그램이 대표적입니다. 2018년 국내 최초로 시작한 ‘옥수수미로 체험’은 첫째 강릉을 시작으로 어느새 남양주까지 진출했습니다. 옥수수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이용한 벚짚, 해바라기, 갈대, 역사 미로 등을 개발했고 상표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광활한 들판에 거대한 미로를 설치해 아이들과 가족들이 와서 즐기는 것이죠. 단

“농촌이 즐거워야 우리 사회가 즐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메타비만의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순히 구경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로를 탈출하는 게임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미로 곳곳에 단서와 이야기가 숨겨져 있고 이것들을 풀어나가며 미로를 탈출하는 방식이죠. 옥수수밭에서 하는 야외 방탈출 같은 개념입니다.”

농촌과 도시를 잇는 사회적기업

메타비는 축제나 농촌 마을 현장에서 게임을 통한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진행합니다. 보물찾기와 빙고 게임을 같이 즐겨보는 ‘팜 미션 게임’이나 축제의 콘텐츠를 더하는 ‘축제 게임’, 이야기와 지형물을 이용해 문제를 푸는 ‘스토리 미션 게임’ 등이 대표적입니다. 최근에는 보령의 우수 체험농장을 선정해, 숨어있는 보령의 캐릭터들을 찾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

‘소셜팜투어’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체험자들은 메타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체험 장소를 선택하고, 농장주가 제공하는 실제 현장에서 농촌 체험을 게임처럼 즐깁니다. 농촌과 이야기에 게임을 더한 것이죠. 저희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어떤 활동을 좋아할지, 어떤 방식으로 농촌을 좀 더 쉽고 친근하게 소개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합니다. 게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해야 하는 만큼 메타비에는 젊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좋은 농산물을 수확하고도 판매 루트나 홍보 방법을 몰라 난감해하던 농부들은 메타비를 통해 마케팅을 배우고 있습니다. 메타비의 스토어팜으로 판매 활로를 찾기도 합니다. 귀농과 귀촌을 앞둔 사람들은 메타비를 통해 농촌의 진짜 이야기를 접해볼

수 있고 아이들은 농촌을 배경으로 가족과 함께 흥미진진한 게임을 즐기며 즐거운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비는 조금 더 나아가려 합니다.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여기에 여행을 접목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어요. 코로나19로 인해 꼭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국내에 아름다운 관광지가 많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된 만큼, 메타비 역시 농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여행 상품을 개발하려 노력 중입니다. 물론 옥수수 미로나 미션 탐험대 등 더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메타비는 ‘농촌이 즐거워야 우리 사회가 즐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메타비만이 할 수 있는, 메타비라서 가능한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MOEL News

1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른
현장 어려움 완화를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1월 2일(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인 아진금형(주)(서울시 금천구 소재)을 방문하여,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종료(2022.12.31.)에 따른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계도기간 부여 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8시간 추가근로제는 2018년 2월 여·야 합의로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2021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 1년 6개월에 한해 1주에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 당시 상황과 달리 코로나 19로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는 등 인력난이 심해지고 이에 더해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 계도기간(2023.1.1.~2023.12.31.)을 부여합니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9개월의(3개월+필요 시 3~6개월 추가) 기간을 부여하여 충분한 시정기회를 제공합니다.



2

상생·연대·재도약
노사정이
함께합니다!



1월 6일(금) 고용노동부는 서울중앙우체국(서울 중구)에서 ‘2023년 노사정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서중수 한국노총 자동차노련 위원장, 황인석 한국노총 화학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 등 노사정 대표와 유관 단체·기관장, 학계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새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만물의 성장과 번창을 상징하는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그 간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대비하여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마음은 노사정 모두가 같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노사정이 힘을 모아 낯은 규범과 의식, 관행을 개선해 더 큰 미래,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시장 개혁을 완수해 노사와 세대가 상생하는 일터를 만들고, 노사가 책임있는 주체로 상생과 연대를 통해 힘을 모은다면 대한민국은 선도국가로 한 발짝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3

노동 개혁,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흔들림 없는 전진!



고용노동부는 1월 9일(월),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①법치 기반의 노동 개혁, ②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③노동시장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을 중점과제로 추진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 개혁의 첫째 기치로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언급했습니다.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낡고 오래된 법·제도를 합리화하고, 불법·부당한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법·제도가 완비되기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4

신년 업무보고 후
첫 현장 행보로
조선업 상생 등
이중구조 해소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11일(수) '조선업 상생협의회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신년 업무보고 후 장관의 첫 번째 현장 행보로, '조선업 상생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조선업 현장방문 결과와 실천협약 마련을 위한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노동 개혁의 성공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정흥준 교수(서울과기대)는 조선업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그룹이 주요 조선 5사 원하청 노·사 의견청취 및 울산·거제·영암 현장방문, 울산시·경남도·전남도 등 자치단체 간담회(2022년 12월~2023년 1월 초)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수렴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현장에서 만난 원하청 노·사는 주제별로 다소 입장 차는 있었으나 이중구조 해소와 조선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진솔한 의견을 제시하는 가운데, 원하청 노·사 모두 '조선업 상생협의회'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표명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노동 개혁의 성공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풀어나갈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5

2023년 고용노동부 노동 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월 12일(목), 분부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및 주요 과제(노사관계, 산업안전 등) 관련 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하는 ‘2023년 고용노동부 노동 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9일 고용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주요 추진과제를 집행하고 있는 지방관서의 주요 간부들과 공유하고 노동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과거 지방관서 기관장만 참석하던 회의와는 달리 국민 최접점에서 산업 안전·노사관계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관서 과장급(서기관·사무관)까지 참여하는 확대 간부회의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본부가 지방관서에 일방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고 이행을 당부하는 형태를 떠나, 각 주요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본부와 지방관서 모두 “이제는 노동 개혁을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음”에 공감하면서 “3대 구조개혁 과제 중에서 가장 빨리 성과를 내고 성공적으로 완수하자”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6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 회의 개최하였습니다



1월 12일(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법 및 회계·세법 전문가들과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노사 불법·부당행위 개선 등 노동관행 개선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회의는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은 노사 법치주의의 기본으로,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관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합리적 노사관계로 나아가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인식하에 마련되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자, 사용자 모두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조직이어야 대내·외적으로 신뢰를 얻고 조직력이 강화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이 사회적인 위상과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각 분야에 가장 정통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신 만큼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조언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근로자의 연대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노사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조력자의 역할 간 균형을 도모해야 하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가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부담이 아닌,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데 공감을 이루었습니다.



7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 및 논의 착수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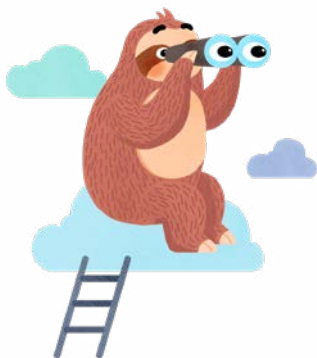


1월 11일(수),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는 논의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학계를 중심으로 총 8명으로 구성했으며, 산업안전법령(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사법, 경제법,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를 균형 있게 위촉하였습니다.

TF는 5개월(1~6월)간 집중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을 논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선 방향인 ▲처벌요건 명확화,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확행,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와 함께, 지난 1년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진현황 및 한계·특성 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개포럼·세미나를 통해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실히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권기섭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기업경영의 핵심과제로 격상시킨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입법 취지와 달리 법리적, 집행과정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8

중소기업과 청년이 함께 도약하는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9일 (월)부터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청년채용장려금을 일원화하여 지난해부터 시작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장려금과는 달리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채용을 망설이던 중소기업들은 과감하게 청년

채용을 결정하고, 장기실업, 고졸 학력 등 일반 청년에 비해 경력이 짧거나 취업에 있어 열악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도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에는 지원 기간과 수준이 늘어난 만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중소기업과 취업애로청년을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일자리 여건이 작년에 비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단념 청년 등 경력이 많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9

워크넷
'인공지능(AI) 일자리
매칭 서비스'
3년 연속 취업 성과가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워크넷 '인공지능(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활용한 취업실적이 2020년 7월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2022년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구직자에게는 본인의 직무역량에 적합한 일자리를 추천하고, 구인 기업에는 구인 공고에 맞는 구직자를 추천하는 서비스로,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 신청을 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인공지능(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한 전체 취업자는 57,844명으로 전년 대비 36.3% 증가했고, 구인 기업이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여 구직자에게 입사를 제안한 건수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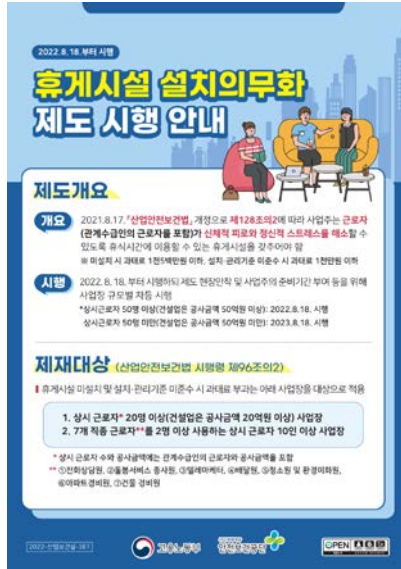
*취업성과

- **전체 취업자** : 인공지능(AI) 추천 일자리에 입사 지원 후 취업을 사유로 워크넷 구직 마감 이 된 전체 취업자는 57,844명으로 전년(42,436명) 대비 36.3% 증가
- **순수 취업자** : 인공지능(AI) 추천 일자리에 입사 지원 후 해당 일자리에 취업하고 고용보험 취득까지 확인된 순수 취업자도 9,283명으로, 전년(4,979명) 대비 86.4% 증가
- **입사 제안** : (2020년 7~12월) 979건, (2021년) 9,344건, (2022년) 34,697건



10

대학교·아파트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월 12일(목), 고용노동부는 대학교 및 아파트의 청소·경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시행)에 따라 상대적으로 휴게 환경이 열악한 청소·경비 등 취약직종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대학교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279개 사업장의 44.4%에 해당하는 124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24개 사업장에서 확인한 273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110개 사업장(88.7%) 238건(87.2%)은 시정을 완료하였고, 그 외 14개 사업장(11.3%) 35건(12.8%)은 지속해서 현장 확인 등 모니터링을 통하여 개선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Chapter 3



날마다



우리 함께 더 나은 내일로

오늘도 성장하고 행복하기!

하버드대학교에서 268명의 삶을 72년간 추적하며

조사한 연구보고서 <행복의 조건>에 따르면

끊임없이 배우고, 유머를 즐기며,

친구를 사귀고, 담배를 끊고,

술을 줄이는 동시에 일찍 귀가해

가족들의 얼굴을 한 번 더 본다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하며

행복할 수 있다고 하네요.

행복의 조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요?



지금부터 우리는 용감하게

드라마 <삼남매가 용감하게> 속
흥미로운 노동법 이야기

가족을 위해 항상 양보하고 성숙해야 했던 K-장녀와 톱스타로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K-장남이 만나 행복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 이달에는 <삼남매가 용감하게> 속 흥미로운 노동법을 알아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의사 겸 의학 콘텐츠 기획자 그리고 K-장녀



삼남매 중 장녀인 김태주(이하나 분)는 의대 두 번 유급으로 간신히 의대만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의 경험이 없는 페이 닥터입니다. 동시에 차운호(이태성 분) 다큐멘터리 감독과 함께 일하는 의학 콘텐츠 기획자이기도 합니다. 의학 관련 교양 다큐멘터리에 자문해줄 의사와 촬영할 병원을 연결해주고, 종종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합니다. 태주는 의사로 살아야 할지, 기획자로 살아야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해 혼란스럽습니다. 김태주 선생님!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하기보다는 N잡러로 지내는 건 어떠세요?



여기서 잠깐!

N잡러에게 추천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요즘은 김태주처럼 여러 가지 직업을 병행하는 N잡러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꼭 기억해주세요.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내려갈 여성들까지 카드 한 장으로 필요한 역량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되니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직업훈련포털+(<http://www.hrd.go.kr>)를 참고하세요.

“우리 사장님은 워라밸에도 진심” 열린 마음의 CEO, 신무영 사장님 응원합니다!



뷰티 인플루언서로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게 된 필라테스 강사 김소림(김소은 분). 본인이 낸 아이디어로 본의 아니게 야근을 하게 됐습니다. 신무영 사장(김승수 분)은 퇴근을 하다 소회의실에서 잠든 소림을 발견하고 일을 도와줍니다. 신 사장은 소림을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회사 직원을 만납니다. 직원이 “사장님, 일찍 나가시는 것 같더니 퇴근이 늦으셨네요”라고 얘기하자 신 사장은 “아, 야근하는 직원이 있어서 일 좀 도와주고 왔어요. 야근은 지양하는 회사를 만듭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열린 마음의 CEO, 신무영 사장과 소림의 로맨스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여기서 잠깐!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요!

2023년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시장의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제도개선도 병행합니다. 특히, 공짜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등의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신용제재·정부지원 사업 제한 등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대학을 꼭 가야 하나요?” 힘내라 청년! 위풍당당 지우 씨!



재수생이자 고모네 가게에서 일하는 바리스타이자 카페집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지우. 스스로를 ‘독립 준비자’라고 생각하는 지우는 대학 진학에는 큰 뜻이 없고 아버지 장영식에게 사진을 배워 지구 여행자로 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빨리 집에서 독립하고 싶어 군 입대를 희망하지만, 부모인 장영식과 나온주는 계속 입시를 준비하기를 바라죠. 하지만 지우는 부모님 몰래 차운호의 프로덕션에 인턴으로 지원하고 당당히 합격합니다. 두근두근 새로운 세계에 발을 내디딘 청년 지우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여기서 잠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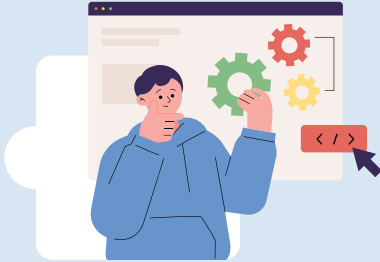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촉진 지원을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한층 업그레이드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023년 1월부터 중·장기(5개월 이상)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며,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수준도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기간이 늘어나고, 지원수준도 높아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스티브 잡스가 강조한 코딩 교육



스티브 잡스는 “모든 사람이 코딩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코딩이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일찍부터 강조한 코딩은 이제 교육 과정의 필수 항목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코딩이란 단어는 익숙하지만, 막상 코딩이 무엇인지 설명하려면 말문이 막히기 일쑤입니다.

코딩(Coding)이란 직역하면 ‘코드를 짤다’는 의미입니다. 넓은 범위로 말하자면 컴퓨터나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지털 기계의 운영체제에 명령을 내리는 행위입니다. 즉 코딩은 디지털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명령을 내리는 거지요. C언어, 자바(JAVA), 파이썬(Python) 등 프로그래밍 언어로 명령어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코딩이 ‘21세기의 영어’라고요?

단어는 익숙하지만 막상 무엇인지 설명하려면
말문이 막히기 일쑤인 코딩. 같이 개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요

IT 분야의 급격한 성장으로 영국, 일본, 이스라엘 등 해외 각국은 경쟁적으로 코딩을 정규 교육과정에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코딩 의무화 교육을 시작했고, 초등학교 고학년생부터 코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딩 교육은 지금보다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초등학교생들은 놀이 중심의 간단한 코딩 교육을, 중·고등학생은 AI 기초원리와 심화 적용까지 배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몇몇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서는 전공을 가리지 않고 필수 교양과목으로 코딩을 넣는다고 하는데,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코딩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드론, 지능형 로봇, 가상현실, 빅데이터, 정보 보안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변하는 모든 산업에 적용되니까요. 온갖 디지털 기계와 소통할 수 있는 '언어'이니, 21세기의 영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논리력과 창의력을 돕는 코딩

코딩은 단순히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다루는 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코딩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코딩의 개념이나 기본적인 방법을 안다면 현실의 업무나 소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게임 콘셉트나 스토리를 짜는 기획자에게는 코딩이 필요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이나 코딩의 언어구조를 이해하고 기획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코딩의 과정은 논리력, 창의력, 문제해결력과도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퍼즐이나 블록 맞추기 등을 통해 코딩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코딩 입문에 도움이 되는 앱

디지털 세계가 방대한 만큼 코딩의 세계 또한 매우 넓어 다양한 언어, 주제,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코딩을 모르는 초보자가 코딩을 시작하려면 어디서부터 무엇 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다양한 코딩 학습 앱들을 한번 활용해보세요.

스위프트바이츠 입문자가 필요한 기본 개념을 모두 다루는 코딩 앱. 연산자부터 함수 생성까지 스위프트의 여러 요소를 다룹니다.

코드짐 자바를 배울 수 있는 무료 코딩 앱 중 하나. 게임 형태로 미션과 강의가 이뤄져 있어 쉽게 학습하기 좋습니다.

미모 2018년 구글플레이 최고의 자기계발 앱으로 선정.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HTML 등 대다수 인기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프로그래밍 허브, 그래스호퍼, 엔키 등도 코딩 입문자들이 사용하기 좋은 앱입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 따스한 봄으로 향하는 2월! 연인들의 사랑을 더욱 깊어지게 하고, 솔로들의 잠든 연애 세포를 깨워줄 다채로운 로맨틱 러브 스토리를 모았습니다.

콩닥콩닥
낭만 가득한
로맨틱 큐레이션



전생을 기억하는 19회차 인생
웹툰 <이번 생도 잘 부탁해>

전생의 기억을 그대로 지닌 채 다음 생을 시작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판타지 로맨스 웹툰 <이번 생도 잘 부탁해>의 여주인공은 지난 18회차 생에 만났던 남주인공을 잊지 못해 19회차의 새로운 삶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그를 다시 만나러 갑니다. 웹툰 <이번 생도 잘 부탁해>는 지난해 완결 후 동명의 드라마로 제작을 확정해 2023년 상반기 방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혹의 세계, 운명적 사랑
뮤지컬 <몰랑루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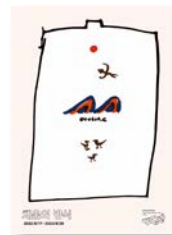
2001년 개봉한 뮤지컬 영화 <몰랑루즈>가 스크린이 아닌 진짜 무대 위에서 더욱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뮤지컬 <몰랑루즈>는 1890년대 파리의 '몰랑루즈'라는 클럽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이곳의 최고 스타 사틴과 무명 작곡가 크리스티앙은 우연한 만남으로 운명적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둘의 관계는 곧 위기를 맞죠. 이들의 러브 스토리를 강렬한 무대, 풍성한 음악과 함께 만나보세요!



변치 않는 사랑의 고백

전시 <앙드레 브라질리에: 멈추어라, 순간이여!>

<앙드레 브라질리에: 멈추어라, 순간이여!>는 20세기 마지막 거장이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앙드레 브라질리에의 70년 작품 세계를 총망라하는 전시입니다. 6m가 넘는 초대형 작품을 포함해 그의 대형 유화 120여 점을 선보입니다. 특히 그의 그림에는 언제나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의 영원한 뮤즈인 아내 샬탈입니다. 작품 속에는 그의 변치 않는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

전시 <장욱진: 채움의 방식>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전시 <채움의 방식>은 장욱진이 가족을 사랑했던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가족'은 장욱진 작품의 대표적 소재이지만, 그는 가족에 대한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언제나 자신을 비우고 남은 자리를 사랑으로 채웠던 작가의 표현 방식을 통해 가족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사교육 전쟁터에서 피어난 로맨스

드라마 <일타 스캔들>

배우 전도연과 정경호의 첫 만남으로 화제가 됐던 드라마 <일타 스캔들>은 치열한 사교육 현장에서 시작된 로맨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 출신의 반찬가게 사장 남행선, 그리고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의 일타 강사 최치열. 공통점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 사랑의 감정을 싹 틔우게 된 걸까요? 입시 지옥 속에 피어난 러브 스토리를 만나봅니다.



저승신이 이승에서 만난 사람

드라마 <꼭두의 계절>

99년마다 인간에게 천벌을 내리러 이승에 내려오는 저승신 꼭두가 신비한 능력을 가진 인간 의사 한계절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 <꼭두의 계절>입니다. 저승길의 인도자 꼭두는 조물주의 노여움을 산 죄로 이승에서 인간의 몸에 들어가 인간쓰레기들을 퇴치해오고 있는데요, 과연 그에게 어떤 특별한 만남이 찾아온 것일까요?

어느새 겨울의 끝자락. 고단한 겨울 견뎌내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말엔 한 잔의 캐모마일 티처럼 따스한 힐링 콘텐츠로 얼어붙고 지쳤던 마음을 녹여보세요.

토닥토닥
따스한 위로
힐링 큐레이션



뜻밖의 만남과 뜻밖의 위로
연극 <서툰 사람들>

장진 연출의 연극 <서툰 사람들>은 20대 여교사 화이의 집에 어리숙한 도둑 덕배가 침입하며 벌어지는 일을 유쾌하고도 따뜻하게 그린 작품입니다. 두 명의 '서툰 사람들'은 서로 티격태격하다 어느새 서로를 도우며 함께 성장해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서툴고 엉뚱하고 어설프지만 미워할 수 없는 두 인물의 이야기가 관객들에게 따뜻한 웃음을 선사합니다.



전쟁이란 비극 속 함께 만든 치유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남한군 영범과 석구는 북한 포로들을 이송하던 중 태풍을 만나 무인도에 고립됩니다. 유일하게 난파선을 고칠 수 있는 건 전쟁 후유증으로 정신이 온전치 않은 북한군 순호뿐. 남북 병사들은 순호를 달래 무인도를 탈출하기 위해 가상의 인물 '여신님' 이야기를 만들고 마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코끼리와 속삭이며 사는 사람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아기 코끼리와 노부부>

인도의 다큐멘터리 영화 <아기 코끼리와 노부부>는 대를 이어 코끼리 관리사로 일하는 봄만과 그의 아내 벨리가 어미 잃은 아기 코끼리 라구를 애지중지 돌보며 살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아기 코끼리는 덩치는 크지만 강아지처럼 사람을 따르며 장난을 치는데요. 대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평온함이 찾아오는 듯합니다.



12만 팔로워가 반한 심리상담툰
만화 에세이 <너의 하루가 따스길 바라>

<너의 하루가 따스길 바라>의 저자 고은지는 '그림 그리는 심리치료사'입니다. 인스타그램에 관계, 감정, 인생, 사랑, 자존감 등을 주제로 힐링 툰을 연재 중인데요. 그중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던 57가지 이야기들과 미공개 만화 15편을 엮어 단행본을 출간했습니다. 동글동글 귀여운 캐릭터들이 10컷 상담을 통해 독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건넵니다.



편안한 밤을 선물하는 자연의 소리
유튜브 <Relax Sleep ASMR>

길 위로 시원하게 쏟아지는 잔잔한 빗소리는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화하고 깊은 잠을 청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연의 소리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휴식과 숙면을 취하고 싶다면 유튜브 채널 <Relax Sleep ASMR>을 찾아보세요. 채널 운영자가 자연 속에서 직접 촬영하고 녹음한 다양한 빗소리를 들으며 기분 좋은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힐링 음악
유튜브 <뮤직 메이트 Music Mate>

작곡가 그린웨일이 들려주는 편안한 힐링음악 채널입니다. 솔솔 잠을 부르는 잔잔한 피아노 연주가 쭉 이어지는데요. 나른한 피아노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재잘재잘 새 소리, 타닥타닥 모닥불 소리 등 조용히 듣고만 있어도 고요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늦은 밤 포근한 이불 속에서 이 음악들과 함께 잠이 든다면 밤새 아주 따뜻하고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요?



동영상 클래스 플랫폼의 대표주자! 클래스 101

CLASS101+

무언가 새로운 걸 배워보고 싶은데 학원 등록하기는 귀찮다면 '클래스 101'을 만나보세요. 2018년 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학생창업기업으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클래스 101은 취미 및 커리어 교육 플랫폼의 대표주자로 손꼽힙니다. 창업, 부업부터 운동, 요리, 손글씨, 일러스트, 메이크업 등 일상에 유용하고 재밌는 클래스가 다양하게 모여 있습니다. 라이프해커 자칭,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의 김난도 교수 등 인플루언서 협업 클래스도 많습니다. 동영상 클래스를 기반으로 하며, 클래스에 따라 1:1 코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캐릭터 수세미 만들기, 공룡 모양 비누 만들기, 미니어처 벽난로 만들기 등 가족이 함께 만들 수 있는 DIY 키트 중심 동영상 교육 서비스도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취미가 같은 동네친구 만들어요! 소모임



최근 당근마켓처럼 지역 기반 플랫폼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소모임'은 당근마켓의 취미 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 기반 취미 공유 플랫폼으로 등산, 명상, 외국어, 수영 등 다양한 취미 모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이나 키트로 배우는 클래스가 아니라, 실제로 오프라인에 사람들을 만나 취미를 공유하거나 전문가에게 배우는 것이 특징입니다. 거주하는 곳 혹은 설정한 지역을 기준으로 모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사가 비슷한 동네친구 만들기에 딱! 2020년 기준 앱 다운로드 수가 300만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다채로운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으니, 새로운 취미 모임에 나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을 때 한번 활용해보세요.

이색적인 취향 모임을 찾았다면? 프립

FRIP

오프라인 모임 위주의 취향 공유 플랫폼 '프립'도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2013년 설립된 프립은 현재 1만 8000여 명에 달하는 호스트가 있는데, 아웃도어·스포츠·여행 분야가 많고 문화예술·요리·베이킹 등 실내 클래스를 운영하는 호스트도 상당수 보유했습니다. 프립에는 이색적인 테마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호스트가 전문성을 가진 콘텐츠라면 무엇이든 상품화해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덕분에 싱글들의 오지 여행, 마피아 게임 모임, RC카 레이스, 바다명·불명 등 이색적인 클래스가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프립은 에어비앤비처럼 호스트들이 자신의 액티비티 상품을 판매하면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다양한 후기를 참고해 원하는 액티비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키트로 취미를 즐겨요! 하비플

HOBBYFUL

하비플은 '취미(Hobby)'와 '아름다운(Beautiful)'의 합성어로, 취미로 아름다운 세상을 가꾼다는 의미의 취향 발굴 플랫폼입니다. 하비플의 클래스는 문화예술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원하는 클래스를 신청하면 재료가 담긴 키트를 배송받아 동영상으로 배우는 시스템입니다. 가족공예, 수채화, 뜨개질부터 라탄·가족·보석공예, 마크라메(서양식 매듭공예), 프랑스자수, 디지털드로잉, 일러스트 등 원데이 체험 클래스를 포함해 100여 개 정규 클래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비플의 또 하나 특징은 모든 클래스 키트가 어르신들의 손길을 거쳐 조립, 포장, 배송된다는 것입니다. 자활을 원하는 노인, 노숙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 두손컴퍼니와 협업해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핸드메이드를 좋아한다면! 아이디어스

idus

아이디어스는 핸드메이드 쇼핑몰이자 핸드메이드 애호가들의 취향 공유 플랫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가들이 직접 만든 핸드메이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점 작가들의 클래스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작가 피드, 작가 추천, 인기 작품, 매거진 등 핸드메이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채로운 콘텐츠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이디어스를 통해 핸드메이드를 배운 뒤 심사를 거쳐 작가가 된 이들도 많다고 하네요. 아이디어스는 입점한 소상공인 작가들을 위한 판매자 교육을 비롯해 사진 촬영 대행 등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제작과 포장 및 배송이 필요한 원부자재도 인터넷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제공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취향이 담긴 공간으로 초대합니다! 남의집

남의
집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반대의 콘셉트로 주목받고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남의집'이에요. 가정집, 작업실, 동네가게 등 개인의 공간으로 낯선 이들을 초대해 대화를 나누며 취향을 공유하는 플랫폼입니다. 모임을 주최하는 '호스트'가 좋아하는 주제로 모임을 만들어 공지하면, '게스트'는 마음에 드는 모임을 선택해 그 공간으로 놀러가는 시스템입니다. 모임의 주제는 재테크, 창업, 요리, 핸드메이드, 와인, 독서 등 무궁무진합니다. 낯선 공간을 구경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익숙한 일상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답니다.

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 소개

이 영상 못본 취업준생 없게 해주세요~

고용노동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정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특히 유용한 영상을 소개해드릴게요.



MBTI보다 더 정확한 검사가 있다고?

(feat. 직업선호도검사, 시밀자리매칭서비스)

나의 적성과 흥미는 무엇인지, 내게 맞는 직업은 무엇인지 아직 고민 중이신가요?
세 명의 취업준비생이 워크넷의 직업선호도검사를 통해 흥미 유형을 측정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알아봤습니다. 내가 희망하는 직업이 과연
내 적성에 맞는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MBTI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직업선호도검사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 유튜브



아직 고용노동부 유튜브를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https://www.youtube.com/user/moelkorea>

👍 좋아요와 👉 구독신청, 🔔 알림신청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AI가 일자리를 매칭해준다?!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이 소개하는 '워크넷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하면 인공지능이 나의 지원 이력과 선호 공고 등을 분석해 나에게 딱 맞는 일자리를 추천해줍니다! AI일자리매칭서비스인데요, 이를 직접 이용해보고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이 서비스의 장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영상을 통해 더 자세히 만나보세요!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취업 스토리, 취준진담

2022년 상반기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상 수상자인 서지해 님의 취업 성공 스토리를 공개합니다. 어떻게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어떤 변화와 성과가 있었는지 들어볼까요? 사업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종이 타월 안 쓰는 습관 들이기! with 손수건 챌린지



손 씻은 후 무심코 쓱쓱 뿜어 쓰는 종이타월, 자원 낭비의 주범이죠!
오늘부터는 가방 안에, 주머니 속에, 작은 손수건 하나씩만 챙겨주세요!
젖은 손을 닦을 때 종이 타월이나 핸드 드라이어 대신 손수건을 사용하면
잘려 나가는 나무의 수를 줄일 수 있고, 전기도 아낄 수 있답니다.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축할 수 있고요!

우리의 작은 습관이 모여 숲을 지키고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착한 챌린지, 함께해주세요!

2월 챌린지 캘린더

CHECK! 챌린지를 실제로 실천한 날을 캘린더에 표시해 보세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입춘 봄을 기다리며 꽃무늬 손수건 장착!
5 정월대보름 	6 월요일을 시작하며 가방 안에 손수건 속!	7 	8	9 손씻은후 종이타월이없어도 당황하지않아요~	10	11
12 주말 외출 나갈 때 손수건 잊지 말기!	13	14 초콜릿 대신 손수건 선물 어때요?	15	16	17 추울 땐 머물러 대음으로~ 	18
19 우수	20 	21	22	23	24	25
26	27	28				



2월 챌린지 캘린더,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매월 한 가지씩 우리의 내일을 위한 챌린지가 진행됩니다. 2월 챌린지 캘린더를 사진으로 찍어 #월간내일 #그린리추얼 #2월 챌린지 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음료 상품권을 드립니다. 혼자라면 포기하기 쉽지만, 함께라면 훨씬 더 쉽게 실천할 수 있어요!

#내일스타그램

이번 달
늘봄이 이야기

내일이 만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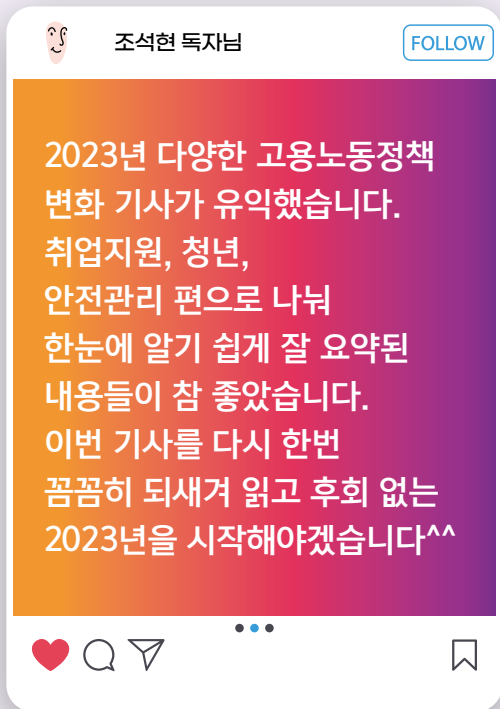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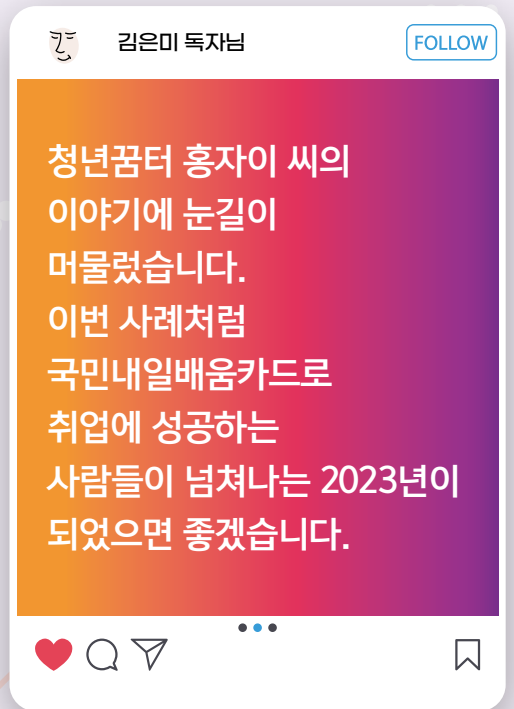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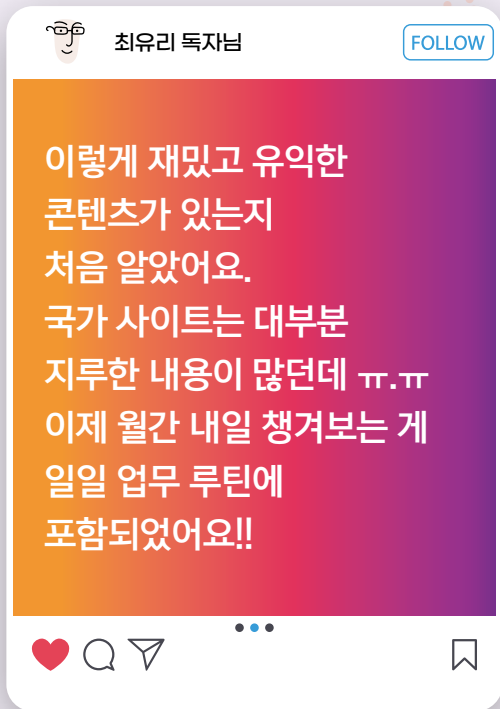
알아두자고용

주말에 뭐할래

REVIEW



2월호 그린 리추얼
'with 손수건 챌린지' 성공 인증샷과 소감을
#내일스타그램으로 보내주세요.



2023년 <월간내일>의 독자님들의 목소리를 공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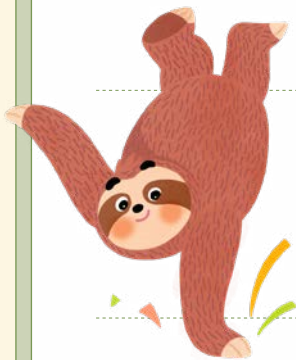
고용노동부 <월간내일> 이벤트

계산해봅시다! ?



올해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은

□□조 □□□□억 원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의 숫자를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힌트: 14~15p를 참고하세요!)

웹진에 접속한 뒤 <이벤트 - 계산퀴즈>를 눌러 정답을 남겨주세요!
<월간내일>을 읽은 소감, 기대평 등도 남겨주면 당첨 확률이 Up! Up!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맛있는 디저트 쿠폰을 드립니다!

이벤 트기간: 2월 15일(일)까지 / 당첨자 발표: 2023년 3월호 지면 및 개별 연락

당첨자: 20명 / 이벤트 상품: 디저트 쿠폰

1월 이벤트 당첨자(*가나다 순)

강정규(5915) 김귀자(9368) 김은미(4443) 문지은(0604) 서경훈(8374) 유소의(0937) 유시열(5048)
이민정(3340) 이순정(2208) 이정훈(3867) 정현도(8628) 조석현(6499) 채유진(1904) 최낙훈(5905)
최준혁(8709) 황윤성(7702) 최영수(8709) 최정화(9132) 최지영(0221) 한혜선(1203)

<월간내일>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디지털이 점점 더 강화되어 가는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월간내일>도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부터는

종이 매거진의 부수가 줄어듭니다.

대신 한층 업그레이드된 웹진으로

여러분과 만날 예정입니다.

<월간내일>의 새로운 모습, 기대해주세요!



